



천혜의 경관·환상의 코스...골프품격 레벨업

오는 9월 오픈 예정인 '담양다이너스티CC' 2번홀 페어웨이 전경. 호남최초의 최상급 페어웨이 잔디인 '제니스'의 푸른색과 붉은 철쭉이 어우러져 있으며 멀리 영국왕실의 성을 옮겨 놓은 듯한 클럽하우스의 외관이 품격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영국왕실 성'의 외관을 재현한 클럽 하우스는 전국 최대규모에 특급 호텔 시설을 자랑하고 회원들에게는 전국 계열 골프장 10곳의 회원 대우 자격도 부여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광주는 물론 타지역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나 골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다음달 코스투어에 이어 개장이 이뤄질면 명문골프장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담양군 금성면 외추리 산 89번지 일원에 총 18홀(파 72·전장 6천384m) 규모로 건설된 '담양다이너스티CC'의 가장 큰 특징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살린 차별화된 코스와 최고급 시설이다. 외형과 내실을 모두 기렸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세계적 명성의 로널드 프립이 설계한 코스는 표고 200M의 완만한 구릉지의 잊적 살려 자연스럽고 코스별로 다양한 묘미와 특성, 추월산으로 둘러싸인 대자연의 경관까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눈사담 형태 코스(타잉그라운드에서는 페어웨이의 시야가 좁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어 부담을 주는 코스)'로 꾸며져 있는 것도 또 다른 매력이다.

여기에 페어웨이의 잔디는 최상급인 '제니스'를 직접 파종, 골퍼들의 고난도 퍼팅

■ '담양 다이너스티 CC' 6월 코스투어

담양에 호남 최초의 최상급 잔디인 '제니스'가 페어웨이 전체를 수놓고, 빼어나고 수려한 조경으로 4계절 대자연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골프장. 다양한 코스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소수 정예, 최고품격의 '담양 다이너스티 CC'가 오는 9월 개장된다.

최상급 잔디·국내 최대규모 클럽하우스 '대주' 소유 골프장 10곳 회원 대우 특혜

감각을 요구하고 있어 호남지역에서는 못보지 못한 골프의 묘미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니스 잔디는 염색이 짙고 밀도가 높아 골프공을 받쳐주는 힘이 강한 게 강점이다. 녹색기도 일반 잔디인 '중지'보다 연간 40일을 더 유지한다.

골프장 주변 경관은 뒷편으로 빼어난 산세를 자랑하는 추월산이 자리잡고 있고 주변은 담양호와 금성산성 등이 위치해 있다. 15번홀과 16번홀에서는 추월산과 금성산성을 바라보며 골프를 즐길 수 있다.

담양 다이너스티 CC의 또 다른 자랑거리이자 압권은 전국 최대 규모, 최고급 설

비의 클럽하우스다.

건평 2천585평 3층 규모인 클럽하우스의 외관은 영국 왕실의 성을 그대로 옮겨 놓은 모습이다. 내부는 중동 두바이내 특급 호텔 내부 설계로 이목을 끌었던 세계적인 인테리어 설계자 안드리아 비세고와 마쓰모토비고니가 꾸민다.

내장자재 중에서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나무결이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의 엔틱 가구가 단연 돋보인다. 모든 가구는 이탈리아 직수입품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커튼 하나까지도 'VIP'들의 품격을 고려,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든 이탈리아제로 장식했다.

일반 골프장에는 없는 대형 연회장도 눈에 띈다. 모두 4개의 연회장이 있는데 대형 연회장(41평)은 최소 30여명의 인원이 연회를 즐길 수 있으며 3층에는 숙박이 가능한 콘도형 객실 3동도 마련됐다.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골퍼들에게 큰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을 이용하면 약 20분이 미처 소요되지 않는다.

담양 다이너스티CC 관계자는 "전국에서 최고의 'VIP' 특권이 골퍼를 즐길 수 있는 초특급 골프장 건설을 목표로 만들었다"면서 "골프장 오픈과 동시에 전국 최고의 명품 골프장으로 이름을 새기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회원권은 조건에 따라 2~5억원대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원이 되면 대주그룹 계열사 소유의 함평 다이너스티(18홀·추가 9월 허가), 동두천 다이너스티(오픈 18홀), 경북 칠곡(27홀·인허가중), 장흥(27홀·6월 공사 착공 예정), 나주(27홀·토지 매입중), 장성(27홀·토지 매입중), 담양 대덕(27홀·토지 매입중), 안성(18홀·인허가중), 담양 봉산(18홀·토지 매입중) 등 전국 골프장 10곳에서 회원 대우 자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꽃밭에서 뭘 생각할까 3일 인천 영종도 스키야72골프장에서 열린 SK텔레콤 오픈 프로암대회에서 위성미가 8번홀 티샷을 앞두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흘 연습 라운드를 통해 코스를 파악한 위성미는 이날 프로암 대회를 통해 마지막 점검에 나섰으나 출마다 바람방향이 다르고 강도도 달라 클럽선택에 고민하는 모습이였다. /*연합뉴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위성미와 SK텔레콤 프로암 라운딩

“내기 제안했더니 거절 임팩트맨 스프링 같아”

“대화맨 미소, 샷 할땐 냉정”

한국프로골프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3일 인천 영종도 스키야72골프장 하늘코스에서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와 프로암대회 동반자로 나서 '프로 위성미'에 대한 인상을 전했다.

박 회장은 핸디캡 5~6 수준의 아마추어 고수. 톰 왓슨(미국), 점보 오자키(일본),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 그리고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등 최정상급 선수들과 동반 라운드를 해왔다.

“프로암 파트너가 됐던 프로 선수 가운데 가장 특이한 케이스”라는 박 회장은 위성미와의 동반 라운드에서 느낀 점을 자세하게 전했다.

박 회장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느낀 점은 위성미의 승부 근성.

2004년 한번 만났을 때 “3타를 접어주고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던 적이 있었는데 위성미가 거절하면서 “3타를 접어주고 하다가 지면 어떻게 하느냐. 지는 것은 죽어도 싫다”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박 회장은 이

날도 내기를 하자고 했더니 “안하겠다”고 했다고.

이날 프로암에서도 말을 걸거나 대화를 할 때는 밝고 환한 표정이었지만 샷을 하기 전에는 싸늘하고 냉정한 표정 일색이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나이 많은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였다.

그리고 영어에 능통한 박 회장이 가능한 위성미가 편하게 대담할 수 있도록 영어로 말을 걸었지만 답변은 언제나 한국말로 했다.

따라 다닌 매니저먼트 회사 직원들과 캐디에게는 영어로 대화를 했지만 동반자들에게는 한마디도 영어를 쓰지 않았다.

박 회장은 프로 선수 위성미에 대해서 “우선 체력이 참 좋다”고 칭찬했다.

2004년 우즈와 라운드할 때 우즈의 몸매가 마치 ‘종마(種馬)’같다고 느꼈다는 박 회장은 위성미 역시 군살 없이 균형잡힌 체격을 갖춰 ‘골프 선수로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극찬했다.

스윙도 힘이 넘치고 매끄럽게 보였고 임팩트에서 플로 스루까지 강력한 스프링처럼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태양광주택보험, 70% 무상보조 실시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무상 보조금 신청 접수, 신속순 마감

장부 무상보조 신청 접수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5kW이하 용량의 태양광발전기(1세대 5kW이하 용량)를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서, 무상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태양광발전기 설치비용 지원
- 태양광발전기 설치비용 지원
- 태양광발전기 설치비용 지원
- 태양광발전기 설치비용 지원
- 태양광발전기 설치비용 지원

태양광 정부 무상지원 사업부 ☎ 1002-369-1800 (문의) 242-7704

5월 3일(금) 개막식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 날!

한지사토 호세오 다생후손 불화 경사나 개최됩니다.

간부 불화(11시~12시) **가부 불화(12시~1시)**

1.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식
2.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식
3.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식
4.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식

한지사토 호세오 다생후손 불화 경사나 개최됩니다.

☎ 062-325-3108 / FAX 062-325-7348